

제주도 중·고등학생의 용돈관리에 관한 연구

성 화 선* · 김 정 숙**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 제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A Study on the Teenagers' Management of Pocket Money

Sung, Haw-Sun* · Kim, Jeong-Sook**

*Cheju Girls' Commercial High School**
*Dept. of Home Management, Cheju National Univ.***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variables that have significant effects pocket money management of adolescents, an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parents and educators who educate adolescents. Data obtained from questionnaires returned by 1,200 adolescents who were randomly selected from middle and high Schools in Chejudo.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SPSS Win Program.

40.3% of the adolescents were satisfied with their pocket money. Monthly average pocket money of them was 305,00₩, middle school students were 19,780₩, high school students were 41,230₩, male students were 32,880₩, and female students were 28,130 ₩. Pocket money expenditure of adolescents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gender, school, region, and pocket money. 43.3% of adolescents had experiences in doing part time for making pocket money. Gender, school, and pocket money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it. The strongest predictor of pocket money management of adolescents is their consumer socialization. Pocket money management of them mostly was influenced by family, friends, school, and mass media.

I. 서 론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소비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소비문제는 자원의 희소성 및 환경문제와 결부되고 있으며, 그 해결방법으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이 중요시되고 있다. 학교 소비자교육에서 과소비를 지양하고 저축과 절약을 강조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소비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다.

196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의 진전은 우리 사회에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해주었다. 그러나 풍요로움의 혜택은 결국 무절제한 소비욕구를 낳았고

급기야는 1997년 말 외환위기를 초래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이 어려움에 처하고 구제금융의 지원을 받고 있는 IMF체제하에서도 일부계층의 과소비현상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다(동아일보, 1998; 조선일보, 1999). 비합리적인 소비생활은 재생산에 필요한 자본축적을 막는 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합리적인 소비습관과 금전관리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절약과 저축의 중요성과 함께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대하여 교육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가계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가정에서 자녀들의 지위가 상승되면서 자녀들의 자유재량소비액인 용돈도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소비자들은 규칙적인 용돈의 사용을 통하여 금전관리기능을 학습하게 된다. 자유재량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돈은 청소년들에게 금전관리기능을 학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학습도구가 될 수 있으므로 용돈은 소비자교육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용돈과 관련된 여러 연구(양경순, 1993; 김영애, 1994; 한명옥, 1995)를 보면 오늘날 핵가족화와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이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 많은 청소년들이 돈에 대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쉽게 낭비함으로써 소비생활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들은 소비자사회화의 결정적 시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지금까지 근검절약교육 또는 합리적 소비생활교육 등을 교육과정에 명시하여 소비자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소비자로서 합리적인 소비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 가치·태도와 관련된 사회화과정은 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예로, 청소년의 용돈실태를 밝힌 조사연구(이승신, 1997)에 의하면 합리적인 소비행위로서 용돈기입장에 "용돈사용을 규칙적으로 기록한다"는 반응은 전체 응답자의 7.6%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초등학생(15.5%)에 비해 중학생(4.0%)이나 고등학생(4.1%)은 훨씬 적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YWCA가 행한 1990년 5월 서울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남녀 중·고등학생의 용돈실태조사에서도 용돈

의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기록하는 학생은 7.8%이며, 특히 남학생의 71.1%는 전혀 기록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용돈을 무계획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한은하, 1991).

호기심이 많고 가치관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기의 중·고등학생들은 합리적으로 소비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대중매체의 무분별한 광고나 선전 등은 청소년들의 합리적 소비행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학생들에게 소비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해 주는 문제는 소비자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을 위한 소비자교육은 주로 학교교육으로서 교과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교과서의 원리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주입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체계적인 이론교육도 중요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소비자교육을 위해서는 교과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제주도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에게 금전관리기능을 학습할 수 있는 중요한 학습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용돈과 관련하여 그 실태를 분석하고 용돈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실증적 자료는 학교교육현장과 가정에서 청소년들에게 합리적인 용돈관리를 위한 소비자교육을 실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용돈의 개념

국어대사전(이회승, 1995)에 보면 용돈이란 '개인이 날마다 잡용으로 쓰는 돈, 또는 특별한 목적을 갖지 않고 자유로이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용돈에 대하여 황덕순(1985)은 소비하거나 저축하거나 "자기자신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학교 납부금, 학교저축, 교과서·참고서대금 등과 같이 개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지출되도록 정해진 것은 제외한다고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임덕순(1991)은 보호자로부터 학생들에게 자유로이 처리할 수 있도록 주어진 금전으로 수업에서는 부모

로부터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받는 현금과 자활 활동으로 얻는 돈, 그리고 손님, 친지 등으로 받는 현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출에서는 저축, 학용품구입, 군것질, 장난감구입, 성금 등 학생 자신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박경숙(1992)은 청소년들이 부모, 친지 등으로 받은 것 중에서 학교 납입금 등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출하는 것을 제외하고 자신들이 쓸 수 있는 돈으로 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용돈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용돈이란 자녀에게 주어진 것으로 그 원천에 상관없이 소비하든지 저축하든지 간에 자신이 자유재량으로 처분할 수 있는 돈으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납부금, 학교저축, 교과서·참고서대금, 통학을 위한 교통비 등 학교생활에서 일정액이 요구되어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로부터 당연히 지출되고 있는 것은 제외된다고 볼 수 있다.

2. 용돈관리행동

용돈관리행동은 용돈을 실제 관리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인간행동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으며 그 행동의 동기는 근본적으로 충족시키고 싶은 인간의 본질적 욕구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욕구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용돈관리의 행동과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박우익, 1983; 한은하, 1991).

일반적으로 용돈관리는 주어진 용돈을 스스로 보관하고 처분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명옥(1995)은 본인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지출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로 본인이 자유재량권이 부여되어 사용할 수 있는 금전을 관리하는 것을 용돈관리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용돈관리를 단순히 금전을 관리하는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소비자 행동과 관련시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용돈의 발생과 지출행위가 바로 소비자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소비자행동은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의사결정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다음 몇 가지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Olshavsky & Granbois, 1979). 첫째, 두 가지 이상에서 대안적 행동이 존재하며, 필연적으로 선택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평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가 설정한 목표에 대하여 그 결과를 예측하고 대안을 예상할 수 있다. 셋째, 의사결정 규칙이나 평가절차에 따라 대안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된다.

소비자행동은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중 중요시하며 소비자행동에서 계획적이고 평가적인 요소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용돈관리능력은 선천적 자질이라기보다는 학습과 경험에 의해 습득되어지고 행동패턴으로 이어지게 된다. Prevey(이재은, 1981)에 의하면 용돈관리는 대개 성인 전기에 그 형태가 결정되며 특히 청소년기에 습득된 생활의 전반적인 관리행동은 그대로 성인기에 이어진다고 하였다. 용돈관리행동에 포함되는 요인으로는 용돈지출의 결정행동, 용돈부족시에 취하는 행동, 용돈이 남았을 때 취하는 행동, 용돈을 사용한 후 취하는 행동, 필요한 용돈을 못 구한 경우에 취하는 행동, 용돈 빚에 대한 행동, 용돈 기입장에 대한 행동, 친구 따라 용돈을 쓰는 정도, 친구를 위해 용돈을 사용해 본 정도 등을 들 수 있다(한은하, 1991; 한명옥, 1995; 이승신, 1997).

이 연구에서는 용돈관리행동을 합리성을 띤 행위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용돈관리행동을 용돈의 수입, 지출과정에서의 계획, 실행, 평가 등을 포함한 용돈에 대한 일련의 의사결정과정으로 용돈관련태도를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계획, 실행, 평가 등 세 개의 하위개념으로 구성하였다.

3. 용돈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인구사회학적 요인

한명옥(1995)에 의하면 용돈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통계학적인 요인으로 성별, 부모의 교육수준, 가계소득 유형, 어머니의 취업유무, 준거집단의 성격 등을 들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용돈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 학교별, 성별, 거주지역, 월평균가계소득, 부모의 학력, 부모의 연령, 부모의 직업, 종교, 생활수준, 가족 구성원, 주택소유형태, 주거형태 등 12가지를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나이와 함께 학습량과 지식이 높아지고 경험의 세계도 확대된다. 정진화(1985)는 소비자행동에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그리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합리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보다 농촌 지역의 학생들이 소비자생활에서 덜 진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자(1987)는 읍지역 학생들보다는 대도시지역 학생들이 금전관리행동수준에서 높게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금전관리행동수준

이 높게 나타났다. 백선옥(1990)에 의하면 농촌학생이 도시학생보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금전관리행동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정희자(1989)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소비행동은 합리적이라고 하였다. 양경순(1993)에 의하면 어머니의 직업이 전문관리직일 때 용돈에 대해 계획적인 소비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청자(1989)에 의하면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고 아버지의 직업이 사무직인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고 있으며, 자신들이 용돈액을 결정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숙(1992)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고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고 있었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용돈을 벌여본 경험이 많다고 하였다. 황덕순(1978)에 의하면 청소년기 자녀의 금전관리행동은 연령, 어머니의 학력, 생활수준에 따른 주관적 인지도와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보다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금전관리교육방식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정희자(1987)는 생활수준과 용돈 지급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생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지도가 높은 수준일 때 용돈지급비율이 커지는 것을 밝혔다. 전동희(1988)에 의하면,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어린이의 소비절약태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영옥(1990)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에 대한 금전관리 지도력에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은하(1991)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용돈지출태도는 월평균 가계소득, 주거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 소비자 사회화과정

Zigler와 Child(1969)에 의하면 사회화란 광범위한 용어로서, 사회적으로 관련이 있는 행동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형성해 나가는 개인 발달의 전반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화란 표준, 태도, 동기, 행동 등이 사회화 대행자로 불리는 어떤 원천으로부터 학습자에게로 전달되는 사회적 과정인 것이다(Churchill & Moschis, 1979).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회화과정에서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영향력의 원천인 사회화의 대행자는 가족, 동년배집단, 학교, 직장, 대중매체, 국가 등인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인간은 저마다 특유한 개성, 자기다움, 정체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된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애주기를 거치는 동안 다양한 사회환경 속에서 계속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능, 지식, 태도 등을 발달시키고 학습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화과정은 소비자의 사회화와 관련시킬 수 있다. 소비자사회화는 시장활동에서 소비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능, 지식, 태도 등을 다른 사람이나 사회환경에서의 여러 대행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아동들이 습득해 가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Ward, 1974). 소비자들은 다양한 시장환경 속에서 여러 사회화대행자들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서 사회화되어 소비자로서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이나 지식 및 태도를 학습하게 된다. 사회화 대행자들과 학습자의 관계는 대행자의 형태와 학습자의 역할형식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김영신, 1985). 대행자(조직체)가 형식적이고 학습자의 역할이 뚜렷한 학교, 대행자가 형식적이고 학습자의 역할이 뚜렷하지 않은 대중매체, 대행자가 비형식적이고 학습자의 역할이 뚜렷한 가족, 대행자가 비형식적이고 학습자의 역할이 뚜렷하지 않은 또래집단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청소년 소비자들의 소비자사회화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행자로서 부모, 또래집단, 학교, 대중매체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대행자들과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측정하였다.

Ward(1974)에 의하면 다양한 구매행위에서 연령에 따라 부모의 영향은 감소하는 대신 친구의 영향은 증가하며, 대중매체의 영향은 거의 변하지 않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신(1985)은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한 소비자사회화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가족은 청소년소비자의 사회화에서 매우 중요한 대행자이므로 가정에서의 소비자교육이 중요시된다고 하였다. 또한 소비자사회화는 인지발달과정이라기보다는 사회학습과정이라고 하였다. Churchill와 Moschis(1979)는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는 소비의 합리적인 면, 목표지향적인 것을 학습하고 그들의 동료들로부터는 상품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학습하게 된다고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중·고등학생의 개인적 요인과 부모의 배경변수에 따라 용돈사용행동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2. 중·고등학생의 개인적 요인과 부모의 배경변수 및 소비자사회화과정 요인이 용돈의 계획, 실행, 평가 등 용돈관리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측정도구

이 연구는 연구목적에 맞게 연구자들에 의해 작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선행연구(강선자, 1992; 김백영, 1996; 김영신, 1991; 백선옥, 1990; 양희, 1992; 천경희, 1985; 한명옥, 1995; 한은하, 1991)를 참고로 작성되었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용돈사용, 사회화과정, 그리고 용돈관리행동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척도의 타당성은 관련 전공 교수님들의 검증을 받았다.

용돈사용과 관련된 문항들은 월희망용돈, 1년 전과 비교한 용돈의 변화정도, 용돈관리지도의 필요성 등 모두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현재의 용돈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등간척도로 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소비자사회화과정척도는 가족 관련 2문항, 동료집단 관련 1문항, 학교 관련 2문항, 대중매체 관련 1문항 등 네 개의 하위변인으로 모두 6문항이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Cronbach α 계수는 0.71이었다.

용돈관리를 측정하는 척도는 계획, 실행, 평가 등 세 개의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었다. 용돈사용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과정과 관련하여 4문항, 용돈을 주의 깊게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지출내용을 기록하는 실행과정과 관련하여 12문항, 용돈을 사용한 후 검토·분석하고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평가와 관련하여 4문항 등 모두 20개 문항이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척도에 대한 Cronbach α 계수는 계획이 0.78, 실행이 .61, 평가가 .72이었으며 전체적으로는 .70이었다.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는 제주도내의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은 제주도, 서귀포시, 남·북제주군 등 지역성을 고려하여 집락표집(cluster sampling)방법으로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15개교에서 추출되었다. 예비조사는 1998년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80명을 대상으로 실시

되었으며, 예비조사결과를 검토하여 부적절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본조사는 1998년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어 연구자가 직접 배부하고 회수하거나 담임교사에게 배부와 회수를 모두 부탁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1,280부를 배부하여 1,250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부실하게 기재된 50부를 제외하고 총 1,200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7.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 t 검정, χ^2 검정, 일원변량분석, 세페의 다중범위검정, 피어슨의 저률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 등이었다. 척도의 신뢰도는 내적일관성법으로 검증하였으며 Cronbach α 계수로 나타났다.

5.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에 의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은 각각 50%로서 600명이었으며 제주시의 학생이 50%, 서귀포시가 23%, 남북제주군이 27%이었다. 종교는 불교가 38%로 가장 많았고 가족수는 4명 이하가 50%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연령은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약 70%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과반수가 고졸이었다. 부의 직업은 농어업이 28%로 가장 많았고 모는 전업주부가 37%, 취업주부가 63%이었다. 가계소득은 52%가 15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이었다. 단독주택이 58%로 가장 많았고 76%가 자가였다.

IV. 분석결과 및 논의

1. 중·고등학생들의 용돈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

<표 2>와 <표 3>은 용돈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나타내고 있다.

<표 3>에 의하면, 제주도 중·고등학생의 월평균용돈은 30,500원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19,780원, 고등학생은 41,230원이었으며, 남학생은 32,880원, 여학생은 28,130원이었다.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수		빈 도 백분율		변 수		빈 도 백분율			
개 인 적 요 인	성 별	남	600 50.0	연 령	13-15세	600 50.0			
		여	600 50.0		16-18세	600 50.0			
	학 교	중학교 2학년	600 50.0	학 유 교 형	인문계고교	360 60.0			
		고등학교 2학년	600 50.0		실업계고교	240 40.0			
부 모 의 배 경 변 수	지 역	제주시	600 50.0	종 교	불 교	458 38.2			
		서귀포시	280 23.3		기독교	331 27.6			
		남·북제주군	320 26.7		종교 없음	394 32.8			
					기 타	17 1.4			
부 모 의 배 경 변 수	부 연 령	30-40세	72 6.1	모 연 령	30-40세	255 21.4			
		40-50세	829 70.6		40-50세	828 69.5			
		50세 이상	274 23.3		50세 이상	108 9.1			
	부 학 력	초졸이하	8 7.5	모 학 력	초졸이하	197 16.5			
		중 졸	183 15.6		중 졸	299 25.1			
		고 졸	615 52.3		고 졸	599 50.3			
		전문대졸이상	37 24.6		전문대졸이상	96 8.1			
	부 모 의 배 경 변 수	부 직 업	전문기술직	91 7.7	모 직 업	전문기술직	19 1.6		
			판매직	111 9.4			판매직	169 14.1	
			생산단순노무직	168 14.3			생산단순노무직	24 2.0	
			행정관리사무직	230 19.2			행정관리사무직	45 3.8	
			서비스직	230 19.2			서비스직	241 20.2	
		농어업직	329 28.0			농어업직	255 21.4		
부 모 의 배 경 변 수	가 계 소 득	무 직	16 1.4		전업주부	438 36.8			
	가 계 소 득	100만원미만	76 6.3	생 활 수 준 인 지	상	37 3.1			
		100-150만원	239 19.9			중 상	215 17.9		
		150-250만원	624 52.0			중 중	725 60.4		
		250-300만원	195 16.3			중 하	189 15.8		
		300만원이상	66 5.5			하	34 2.8		
주 거 형 태	단독주택	701 58.4	주 소 유	자 가 전 소 기 타	914 76.2				
	아파트	240 20.0		전 세 사 글 세 기 타	196 16.3				
	연립주택	186 15.5			70 5.8				
	기 타	73 6.1			20 1.7				
가 족 수	4명이하	594 49.5	계		1200 100.0				
	5-6명	507 42.3							
	7명이상	99 8.2							

주) 편부가정 25, 편모가정 9임.

21,450원이 많았고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4,750원이 더 많았다.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5대 도시의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월평균 용돈이 43,000원(조선일보, 1999)인 것으로 나타나 제주도 고등학생들의 평균용돈수준이 전국 대도시의 평균용돈수준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이 희망하는 월평균용돈은 중학생은 27,180원, 고등학생은 59,640원이었으며, 남학생은 47,290원, 여학생은 39,530원이었다. 현재 받고 있는 용돈

보다 중학생은 7,400원, 고등학생은 18,410원을, 그

〈표 2〉 월평균용돈과 희망용돈

변 수	빈 도	월평균용돈	월평균희망용돈
남	600	32,880원	47,290원
여	600	28,130원	39,530원
중	600	19,780원	27,180원
고	600	41,230원	59,640원
계	1,200	30,510원	43,410원

리고 남학생은 14,410원, 여학생은 11,400원을 더 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고등학생들의 경우 현재의 용돈과 희망하는 용돈간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돈의 범위를 보면 15,000-30,000원이 30.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5,000원 미만이 24.2%, 30,000-40,000원이 15.7%, 40,000-60,000원은

17.8%, 60,000원 이상은 12.1% 이었다. 희망하는 용돈의 범위는 40,000-60,000원이 23.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60,000원 이상이 22.3%를 차지했다. 15,000원 미만을 희망하는 학생은 12.5%에 불과하였다.

<표 3>에 의하면 현재의 용돈에 대해서는 40.3%

<표 3> 용돈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월평균 용돈범위	1.5만 미만	290	24.2	월희망 용돈범위	1.5만미만	150	12.5	
	1.5-3만미만	363	30.3		1.5만-3만미만	253	21.1	
	3-4만미만	188	15.7		3만-4만미만	249	20.8	
	4-6만미만	214	17.8		4만-6만미만	281	23.4	
	6만 이상	145	12.1		6만이상	267	22.3	
용돈 만족도	매우 만족	125	10.4	용돈 받는 방법	월 1회	280	23.3	
	만족	359	29.9		월 2,3회	49	4.1	
	보통	384	32.0		매주	233	19.4	
	불만족	200	16.7		매일	150	12.5	
	매우 불만족	132	11.1		수시로	488	40.7	
용돈 지급인	부모	1119	93.3	용돈 결정자	자신	277	23.1	
	조부모	19	1.6		부모	555	46.3	
	형제자매	26	2.2		지급자와 상의	340	28.3	
	기타	36	3.0		기타	28	2.3	
용돈통장	있음	816	68.0	현금카드	있음	373	45.7	
	없음	384	32.0		없음	443	54.3	
친구와 비교한 용돈요구	자주함	45	3.8	임시용돈 사용	간식비	757	63.1	
	가끔함	327	27.3		오락비	694	57.8	
	거의 안함	438	36.5		의식비	450	37.5	
	전혀 안함	390	32.5		의복비	445	37.1	
임시용돈 관리	현금으로 보관	711	59.3		학용품비	370	30.8	
	부모에게 맡김	91	7.6		책구입·대여	319	26.6	
	저축	284	23.7		선물비	298	24.8	
	바로 사용	94	7.8		교통비	151	12.6	
	기타	20	1.7		기타	116	9.7	
부업경험	있음	519	43.3		빛	있음	304	25.3
	없음	681	56.7			없음	896	74.7
용돈 지급자 가계부기록	항상 기록함	365	30.4		용돈 사용결과 부모확인	자주함	85	7.1
	가끔 기록함	218	18.2	가끔함		462	38.5	
	거의 기록안함	331	27.6	거의 안함		442	36.8	
	전혀 기록안함	286	23.8	전혀 안함		211	17.6	
용돈지도 필요성 인식	매우 필요	210	17.5	소비자 사회화과정	상(1.00-2.28)	133	11.1	
	약간 필요	706	58.8		중(2.28-3.22)	553	46.1	
	필요 없음	284	23.7		하(3.22-5.00)	514	42.8	
계		1200	100.0	계		1200	100.0	

주) 1. 임시용돈의 사용빈도는 복수응답의 결과이며 비율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비율임.
 2. 소비자사회화과정은 5점 척도로 평균±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것임.

가 만족하고 있었으며, 27.8%는 만족하지 않고 있었다. 전체의 69% 학생이 친구와 비교하여 용돈을 더 요구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돈을 주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부모였으며(93.3%), 용돈금액은 부모가 결정하는 경우가 46.3%로 가장 많았고, 28.3%는 학생과 의논하여 결정하였고 23.1%는 학생 자신이 결정하였다. 과반수의 학생들이 용돈금액결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용돈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용돈통장은 68%가 가지고 있었으며, 용돈통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의 46.1%가 현금카드를 가지고 있었다. 임시용돈이 생겼을 때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현금으로 보관(59.3%)하고 있었으며, 23.7%는 저축을 하였다. 바로 사용하는 학생은 7.8%이었고 부모에게 맡기는 경우는 7.6%이었다. 임시용돈은 간식비(63.1%), 오락비(57.8%), 외식비(37.5%), 의복구입비(37.1%), 학용품구입비(30.8%) 순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학생들이 임시용돈을 주로 먹거나 오락하는데 소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가정과 학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임시용돈의 관리에 대한 지도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용돈을 받는 방법은 중·고등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 수시로 받는 학생들이 40.7%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월 1회(23.3%), 매주(19.4%), 매일(12.5%), 월 2-3회(4.1%)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돈을 주는 방법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수시로 받거나 매일 용돈을 받을 경우, 용돈이 금전관리기능을 학습할 수 있는 학습도구로서 기능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용돈이 학습도구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들은 정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용돈을 줄 필요가 있다. 용돈관리와 사용 등에 대한 지도가 매우 필요하다는 학생은 17.5%, 약간 필요하다는 학생은 58.8%, 필요 없다는 학생은 23.7%인 것으로 나타났다. 76.3%의 학생들이 용돈사용방법에 대한 지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용돈지도에 대하여 부모와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가 용돈사용의 결과를 가끔 확인하는 경우는 38.5%이었으며 거의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는 36.8%이었다. 17.6%는 전혀 확인을 하지 않고 있었고 7.1%만이 자주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용돈사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용돈은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다는 인식을 가지게 할 수 있으며 비합리적 소비성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용돈마련을 위하여 부업을 경험한 학생은 43.3%이었고, 용돈지급자가 가계부를 기록하는 경우(48.6%) 보다는 안 하는 경우(51.4%)가 높았다. 소비자사회화 수준은 상집단은 11.8%, 하집단은 42.8%, 중집단은 46.1%인 것으로 나타나 사회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용돈사용행동과 관련변수와의 관계

1) 용돈금액의 변화

〈표 4〉은 1년 전과 비교한 용돈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4〉에 의하면 전체적으로는 1년 전과 비교하여 용돈이 변하지 않았다는 학생이 거의 과반수인 48.5%로 가장 많았으며, 증가한 학생은 27.3%, 감소한 학생은 24.3%이었다. 용돈이 감소한 학생이 24.3%에 불과하여 IMF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고등학생들의 용돈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개인적 요인과 부모의 배경변수에 따른 용돈변화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학교유형, 월평균용돈, 생활수준인지도, 어머니의 연령·학력, 가계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성별, 중·고별,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실업계고교생(22.5%)보다 인문계고교생(28.1%)이 용돈이 증가한 비율이 높았으며, 감소한 비율은 인문계고교생(18.3%)보다 실업계고교생(28.3%)이 높았다. 월평균용돈이 6만원이상인 학생들은 거의 과반수에 가까운 48.3%가 1년 전과 비교하여 용돈이 증가하였고 13.9%만이 감소하였으나 1만 5천원 미만의 용돈을 받는 학생들은 15.9%만이 증가하였고 34.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용돈이 많은 학생들보다 적은 학생들이 경제위기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생활수준인지도가 상 또는 중상인 학생들은 약 36%가 증가한 것으로, 약 1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하 또는 하인 학생들은 약 22%가 증가한 것으로, 약 4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연령에 따라서는 증가한 비율과 감소한 비율이 모두 30대(약 31%)가 40대, 50대에 비해 높

〈표 4〉 1년 전과 비교한 용돈의 변화

빈도 (%)

변 수		증 가	그대로	감 소	계	비 고
성별	남	177 (29.5)	288 (48.0)	135 (22.5)	600 (100.0)	$\chi^2 = 3.8$ df = 2
	여	150 (25.0)	294 (49.0)	156 (26.0)	600 (100.0)	
학교	중	172 (28.7)	271 (45.2)	157 (26.2)	600 (100.0)	$\chi^2 = 5.5$ df = 2
	고	155 (25.8)	311 (51.8)	134 (22.3)	600 (100.0)	
	인문고	101 (28.1)	193 (53.6)	66 (18.3)	360 (100.0)	$\chi^2 = 8.7^*$ df = 2
	실업고	54 (22.5)	118 (49.2)	68 (28.3)	240 (100.0)	
월평균용돈	1.5만미만	46 (15.9)	144 (49.7)	100 (34.5)	290 (100.0)	$\chi^2 = 66.7^{***}$ df = 8
	1.5만-3만	90 (24.8)	191 (52.6)	82 (22.6)	363 (100.0)	
	3만-4만	62 (33.0)	92 (48.9)	34 (18.1)	188 (100.0)	
	4만-6만	59 (27.6)	106 (49.5)	49 (22.9)	214 (100.0)	
	6만이상	70 (48.3)	49 (33.8)	26 (17.9)	145 (100.0)	
거주지	제주시	180 (30.0)	280 (46.7)	140 (23.3)	600 (100.0)	$\chi^2 = 6.2$ df = 4
	서귀포시	67 (23.9)	136 (48.6)	77 (27.5)	280 (100.0)	
	남북군	80 (25.0)	166 (51.9)	74 (23.1)	320 (100.0)	
생활수준	상	14 (37.8)	17 (45.9)	6 (16.2)	37 (100.0)	$\chi^2 = 36.8^{***}$ df = 8
	중상	75 (34.9)	101 (47.0)	39 (18.1)	215 (100.0)	
	중	193 (26.6)	365 (50.3)	167 (23.0)	189 (100.0)	
	중하	37 (19.6)	91 (48.1)	61 (32.3)	189 (100.0)	
	하	8 (23.5)	8 (23.5)	18 (52.9)	34 (100.0)	
모연령	30대	79 (31.0)	98 (38.4)	78 (30.6)	255 (100.0)	$\chi^2 = 16.3^{**}$ df = 4
	40대	226 (27.3)	421 (50.2)	181 (21.9)	828 (100.0)	
	50대이상	22 (20.4)	58 (53.7)	28 (25.9)	108 (100.0)	
모학력	초 줄	46 (23.4)	98 (49.7)	53 (26.9)	197 (100.0)	$\chi^2 = 15.0^*$ df = 6
	중 줄	83 (27.8)	144 (48.2)	72 (24.1)	299 (100.0)	
	고 줄	157 (26.2)	302 (50.4)	140 (23.4)	599 (100.0)	
	전문대이상	41 (42.7)	33 (34.4)	22 (22.9)	96 (100.0)	
가계소득	100만이하	50 (20.1)	121 (48.6)	78 (31.3)	249 (100.0)	$\chi^2 = 33.0^{***}$ df = 8
	100-150만	65 (20.4)	171 (53.6)	83 (26.0)	319 (100.0)	
	150-200만	119 (33.1)	160 (44.6)	80 (22.3)	359 (100.0)	
	200-300만	69 (33.3)	98 (47.3)	40 (19.3)	207 (100.0)	
	300만 --	24 (36.4)	32 (48.5)	10 (15.2)	66 (100.0)	
계	327 (27.3)	582 (48.5)	291 (24.3)	1200(100.0)		

1) * p<.05 ** p<.01 *** p<.001 2) 편부가정 25, 편모가정 9임.

았으며, 40대, 50대는 30대에 비해 변화 없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는 전문대졸이상(42.7%)이 초·중·고졸 집단(23.4-26.2%)에 비하여 증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변화가 없는 비율은 초·중·고졸이(48.2-50.4%) 대졸보다(34.4%) 높았고 감소한 비율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은 높을수록 증가한 비율은 높아졌고 감소한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나

타냈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월평균용돈이 많을수록, 생활수준인지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은 높을수록, 연령은 40대가, 그리고 가계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다른 집단에 비하여 용돈이 증가한 비율은 높고 감소한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월평균소득수준, 가계소득수준, 그리고 생활수준인지도가 낮은 학생들이 높은 학생들에 비해 용돈에서 경제위기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의 용돈수준에 있어서도 IMF로 인하여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2) 월평균 및 월희망용돈과 용돈만족도
 <표 5>는 개인적 요인 및 부모의 배경요인에 따른 월평균 및 월희망용돈과 용돈만족도에 있어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5> 월평균·월희망용돈 및 용돈만족도

단위 : 천원

집 단		월평균용돈			월희망용돈			용돈만족도		
		평균	F(t)	S	평균	F(t)	S	평균	F(t)	S
성별	남	32.88			47.29			3.13		
	여	28.13	3.42**		39.53	3.92***		3.10	.38	
학교	중	19.78			27.18			3.26		
	고	41.23	-17.18***		59.64	-18.47***		2.99	4.14***	
	인문고	41.48			56.58			3.09		
	실업고	40.85	.27		64.23	-2.36*		2.83	2.87**	
월평균용돈	1.5만미				17.87		a	2.93		a
	1.5-3 만				30.10		b	3.01		ab
	3-4 만	-			42.72	438.69***	c	3.30	6.02***	b
	4-6 만				60.01		d	3.25		b
	6만이상				104.21		e	3.33		b
월희망용돈	1.5만미만	7.77		a				3.33		a
	1.5-3 만	14.56		b				3.25		a
	3-4 만	22.47	473.74***	c	-			3.08	4.62**	ab
	4-6 만	34.09		d				3.14		ab
	6만이상	62.12		e				2.90		b
용결 돈과 사확 용인	자주 행함	25.81			37.85		a	2.95		
	가끔 행함	29.48			41.94		a	3.21		
	거의 안함	30.62	3.19*		42.64	4.09**	ab	3.14	2.69*	
	전혀 안함	34.40			50.50		b	2.97		
생 활 수 준	상	28.41			35.54		a	3.81		a
	중 상	30.59			39.15		a	3.44		a
	중 중	31.17	1.84		44.29	4.29**	a	3.11	16.55***	b
	중 하	27.06			42.85		a	2.83		c
	하	37.26			63.26		b	2.24		c
모 연 령	30 대	24.96		a	35.82		a	3.12		
	40 대	31.18	14.68***	b	44.23	12.73***	b	3.14	.40	
	50대이상	39.41		c	54.97		c	3.04		
모 학 력	초 졸	30.57			47.98			2.97		
	중 졸	32.28			45.68			3.07		
	고 졸	29.98	.72		41.16	2.62*		3.19	2.75*	
	전문대이상	29.20			40.86			3.30		
가 계 소 득	100만이하	28.08			42.59			2.97		
	100-150만	27.64			40.94			3.01		
	150-200만	32.65	3.42**		45.14	.92		3.21	3.22*	
	200-300만	32.93			43.86			3.27		
	300만-	34.30			47.64			3.21		
가 계 부	항상 기록	28.49		a	38.61		a	3.21		
	가끔 기록	27.49		a	40.65		ab	3.10		
	거의 안함	33.97	4.41**	b	47.37	5.40**	b	3.11	1.41	
	전혀 안함	31.37		ab	47.06		b	3.03		

주) * p<.05 ** p<.01 *** p<.001. S : Scheffe's Multiple Range Test

〈표 5〉에 의하면 월평균용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중·고별, 월희망용돈, 용돈사용결과확인, 모연령, 가계소득, 가계부기록 등이었으며, 계열, 생활수준인지도, 모연령, 모학력, 가계소득 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희망하는 용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용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하위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모가 용돈사용결과를 전혀 확인하지 않는 집단과 확인하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용돈사용결과를 전혀 확인하지 않는 집단의 자녀들이 용돈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용돈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집단별로는 30대, 40대, 50대 집단간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월평균용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부모가 가계부를 기록할수록 용돈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상 기록을 하거나 가끔 기록하는 집단과 거의 기록을 하지 않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거의 기록을 하지 않는 집단의 자녀들이 용돈을 많이 받고 있었다.

다음으로 월희망용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학교별, 월평균용돈, 용돈사용결과확인, 생활수준인지도, 모의 연령, 모의 학력, 가계부기록 등이었으며, 가계소득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그리고 실업고교생들이 인문고교생들보다 희망용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용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용돈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집단간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많은 용돈이 학생들의 소비수준을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가 용돈사용의 결과를 확인하지 않을수록 희망용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확인을 하는 집단과 전혀 하지 않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생활수준인지도가 낮을수록 더 많은 용돈을 받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하집단과 다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희망하는 용돈금액이 많았으며 30대, 40대, 50대 집단간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 학력은 낮을수록 희망하는 용돈금액이 많았으나, 하위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어머니가 가계부를 기록하지 않을수록 희망용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상 기록하는 집단과 기록을 하지 않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용돈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교별, 월평균용돈, 월희망용돈, 용돈사용결과확인, 생활수준인지도, 모학력, 가계소득 등이었으며, 성별, 모연령, 가계부기록 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그리고 인문고교 학생이 실업고교 학생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월평균용돈에 따라서는 월평균 1만 5천원미만 집단과 3만원이상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3만원이상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3만원이상의 집단들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희망용돈은 적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며, 희망용돈이 3만원 미만인 집단과 6만원이상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모의 용돈사용결과확인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하위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생활수준을 높게 인지하고 있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며 중상이상, 중, 중하이하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의 학력과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정도가 낮은 학생의 용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김영애(1994)의 연구와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학생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한은하(1991)의 연구와는 상반되고 있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용돈사용결과의 확인과 가계부기록은 용돈만족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월평균용돈과 희망용돈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용돈사용결과를 확인하는 집단이 확인을 하지 않는 집단에 비하여, 그리고 가계부를 기록하는 집단이 기록하지 않는 집단에 비하여 월평균용돈과 희망용돈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의 용돈사용결과의 확인과 가계부기록이 자녀들의 평균용돈과 희망용돈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용돈사용결과에 대하여 부모가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자녀들이 요구하는 대로 용돈을 지급하게 될 수 있으며 비계획적인 지출로 용돈금액의 증가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부모가 가계부를 기록하는 합리적인 소비생활모습이 자녀에게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용돈지출순위

〈표6〉은 용돈지출순위 중에서 제1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용돈지출순위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6〉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용돈지출 1순위는 간

〈표 6〉 용돈지출순위

빈도(%)

변 수	간식비	의식비	선물비	책구입	학용품	교통비	의복비	오락비	기 타	계	비 고	
성 별	남	320(53.3)	55(9.2)	30(5.0)	40(6.7)	19(3.2)	25(4.2)	29(4.8)	72(12.0)	10(1.7)	600(100.0)	$\chi^2 = 44.2^{***}$ df = 8
	여	289(48.2)	100(16.7)	60(10.0)	27(4.5)	27(4.5)	27(4.5)	32(5.3)	11(1.8)	600(100.0)		
학 교	중	323(53.8)	37(6.2)	39(6.5)	54(9.0)	33(5.5)	26(4.3)	24(4.0)	55(9.2)	9(1.5)	600(100.0)	$\chi^2 = 81.9^{***}$ df = 8
	고	286(47.7)	118(19.7)	51(8.5)	13(2.2)	13(2.2)	26(4.3)	32(5.3)	49(8.2)	12(2.0)	600(100.0)	
	인문고	183(50.8)	67(18.6)	38(10.6)	5(1.4)	8(2.2)	9(2.5)	15(4.2)	29(8.1)	6(1.7)	360(100.0)	$\chi^2 = 19.2^*$ df = 8
	실업고	103(42.9)	51(21.3)	13(5.4)	8(3.3)	5(2.1)	17(7.1)	17(7.1)	20(8.3)	6(2.5)	240(100.0)	
월 평 균	1.5만미만	151(52.1)	25(8.6)	23(7.9)	28(9.7)	24(8.3)	8(2.8)	7(2.4)	19(6.6)	5(1.7)	290(100.0)	$\chi^2 = 73.6^{***}$ df = 32
	1.5-3만	191(52.6)	42(11.6)	23(6.3)	20(5.5)	14(3.9)	14(3.9)	18(5.0)	36(9.9)	5(1.4)	363(100.0)	
	3-4만	97(51.6)	22(11.7)	18(9.6)	6(3.2)	4(2.1)	7(3.7)	9(4.8)	20(10.6)	5(2.7)	188(100.0)	
	4-6만	99(46.3)	37(17.3)	18(8.4)	9(4.2)	2(0.9)	14(6.5)	10(4.7)	21(9.8)	4(1.9)	214(100.0)	
	6만이상	71(49.0)	29(20.0)	8(5.5)	4(2.8)	2(1.4)	9(6.2)	12(8.3)	8(5.5)	2(1.4)	145(100.0)	
거 주 지	제주시	294(49.0)	86(14.3)	49(8.2)	36(6.0)	20(3.3)	17(2.8)	29(4.8)	60(10.0)	9(1.5)	600(100.0)	$\chi^2 = 39.7^{**}$ df = 16
	서귀포시	147(52.5)	45(16.1)	18(6.4)	17(6.1)	9(3.2)	7(2.5)	14(5.0)	19(6.8)	4(1.4)	280(100.0)	
	남북군	168(52.5)	24(7.5)	23(7.2)	14(4.4)	17(5.3)	28(8.8)	13(4.7)	25(7.8)	8(2.5)	320(100.0)	
생 활 수 준	상	21(56.8)	4(10.8)	2(5.4)	2(5.4)	1(2.7)	0(0.0)	2(5.4)	5(13.5)	0(0.0)	37(100.0)	$\chi^2 = 25.3$ df = 32
	중 상	111(51.6)	21(9.8)	14(6.5)	17(7.9)	9(4.2)	7(3.3)	12(5.6)	20(9.3)	4(1.9)	215(100.0)	
	중	368(50.8)	105(14.5)	49(6.8)	37(5.1)	29(4.0)	35(4.8)	31(4.3)	62(8.6)	9(1.2)	725(100.0)	
	중 하	95(50.3)	20(10.6)	20(10.6)	10(5.3)	6(3.2)	8(4.2)	9(4.8)	14(7.4)	7(3.7)	189(100.0)	
모 연 령	30대	134(52.5)	24(9.4)	17(6.7)	24(9.4)	12(4.7)	14(5.5)	11(4.3)	15(5.9)	4(1.6)	255(100.0)	$\chi^2 = 23.9^*$ df = 16
	40대	425(51.3)	114(13.8)	61(7.4)	40(4.8)	30(3.6)	30(3.6)	37(4.5)	76(9.2)	15(1.8)	828(100.0)	
	50대이상	45(41.7)	17(15.7)	10(9.3)	3(2.8)	4(3.7)	7(6.5)	8(7.4)	12(11.1)	2(1.9)	108(100.0)	
모 학 력	초 졸업이하	96(48.7)	29(14.7)	18(9.1)	7(3.6)	10(5.1)	9(4.6)	6(3.0)	18(9.1)	4(2.0)	197(100.0)	$\chi^2 = 18.2$ df = 24
	중 졸	157(52.5)	42(14.0)	25(8.4)	13(4.3)	9(3.0)	15(5.0)	13(4.3)	22(7.4)	3(1.0)	299(100.0)	
	고 졸	300(50.1)	75(12.5)	38(6.3)	39(6.5)	24(4.0)	22(3.7)	33(5.5)	54(9.0)	14(2.3)	599(100.0)	
	전문대이상	51(53.1)	9(9.4)	7(7.3)	8(8.3)	3(3.1)	5(5.2)	4(4.2)	9(9.4)	0(0.0)	96(100.0)	
가 계 소 득	100만이하	114(45.8)	41(16.5)	19(7.6)	20(8.0)	11(4.4)	9(3.6)	12(4.8)	18(7.2)	5(2.0)	249(100.0)	$\chi^2 = 44.0$ df = 32
	100-150	184(57.7)	42(13.2)	17(5.3)	9(2.8)	14(4.4)	15(4.7)	6(1.9)	27(8.5)	5(1.6)	319(100.0)	
	150-200	171(47.6)	38(10.6)	35(9.7)	19(5.3)	17(4.7)	18(5.0)	25(7.0)	29(8.1)	7(1.9)	359(100.0)	
	200-300	105(50.7)	25(12.1)	13(6.3)	16(7.7)	3(1.4)	8(3.9)	10(4.8)	25(12.1)	2(1.0)	207(100.0)	
	300만-	35(53.0)	9(13.6)	6(9.1)	3(4.5)	1(1.5)	2(3.0)	3(4.5)	5(7.6)	2(3.0)	66(100.0)	
계	609(50.8)	155(12.9)	90(7.5)	67(5.6)	46(3.8)	52(4.3)	56(4.7)	104(8.7)	21(1.8)	1200(100.0)		

1) * p<.05 ** p<.01 *** p<.001 2) 편부가정 25, 편모가정 9.

식비가 50.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의식비(12.9%), 오락비(8.7%), 선물구입비(7.5%), 책구입비(5.6%), 의복비(4.7%), 교통비(4.3%), 학용품비(3.8%)인 것으로 나타나 중고등학생들의 용돈지출에서 간식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개인적 요인과 부모의 배경변수에 따라서는 생활수준인지도, 모학력, 가계소득 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 학교별, 월평균용

돈, 거주지, 모의 연령 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간식비에서는 남학생은 53.3%, 여학생은 48.2%이었고 오락비에서는 남학생은 12.0%, 여학생은 5.3%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식비에서는 남학생은 9.2%, 여학생은 16.7%이었으며, 선물비에서는 남학생은 5.0%, 여학생은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의 비목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남

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하여 간식비와 오락비에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하여 외식비와 선물구입비에서 지출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김영애(1994)와 차경실의 연구(1987)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중학생은 고등학생보다 간식비와 책구입비에서,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외식비에서 지출이 많았다. 인문계 학생들은 실업계 학생들에 비해 간식비와 선물구입비에서, 실업계 학생들은 인문계 학생들에 비해 외식비, 교통비, 의복비에서 지출이 많았다. 그리고 월평균용돈이 적은 학생들은 많은 학생들보다 책구입비, 학용품비에서, 용돈이 많은 학생들은 적은 학생들보다 외식비, 의복비에서 지출이 많았다.

거주지역별로 보면, 제주·서귀포시 학생들은 남·북군 학생들에 비해 외식비에서, 남·북군 학생들은 제주·서귀포시 학생들에 비해 교통비에서 지출이 높

게 나타났다. 모의 연령에 따라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30대는 책구입비에서, 30, 40대는 간식비에서, 50대 이상은 외식비와 오락비에서 지출이 많았다.

4) 용돈부족시의 행동

<표 7>은 개인적 요인과 부모의 배경변수에 따른 용돈부족시의 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용돈이 부족하지 않다고 한 경우는 10.3%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용돈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남학생은 12.0%, 여학생은 8.7%, 중학생은 14.3%, 고등학생은 6.3%이었다.

<표 7>에 의하면 용돈이 부족할 때 취하는 행동은 전체적으로는 용돈을 주는 분에게 용돈을 요청하는 경우가 38.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친구에

<표 7> 용돈 부족시의 행동

빈도(%)

변수	친구빌림	미리받음	저축인출	참음	용돈요청	기타	계	비고	
성별	남	136(25.8)	25(4.7)	91(17.2)	104(19.7)	154(29.2)	18(3.4)	528(100.0)	$\chi^2 = 49.4^{***}$ df=5
	여	77(14.1)	26(4.7)	99(18.1)	68(12.4)	255(46.5)	23(4.2)	548(100.0)	
학교	중	79(15.4)	31(6.0)	94(18.3)	96(18.7)	194(37.7)	20(3.9)	514(100.0)	$\chi^2 = 17.9^{***}$ df=5
	고	134(23.8)	20(3.6)	96(17.1)	76(13.5)	215(38.3)	21(3.7)	562(100.0)	
	인문고 실업고	86(25.6) 48(21.2)	13(3.9) 7(3.1)	51(15.2) 45(19.9)	45(13.4) 31(13.7)	132(39.3) 83(36.7)	9(2.7) 12(5.3)	336(100.0) 226(100.0)	$\chi^2 = 5.8$ df=5
월 평 균 용 돈	15만미만	41(16.3)	13(5.2)	49(19.5)	51(20.3)	80(31.9)	17(6.8)	251(100.0)	$\chi^2 = 38.6^*$ df=20
	1.5 -3만	58(17.5)	15(4.5)	55(16.6)	59(17.8)	128(38.7)	16(4.8)	331(100.0)	
	3 -4만	33(19.5)	12(7.1)	32(18.9)	20(11.8)	71(42.0)	1(6)	169(100.0)	
	4 -6만	46(23.6)	6(3.1)	35(17.9)	26(13.3)	80(41.0)	2(1.0)	195(100.0)	
	6만이상	35(26.9)	5(3.8)	19(14.6)	16(12.3)	50(38.5)	5(3.8)	130(100.0)	
거 주 지	제주시	100(18.6)	31(5.8)	86(16.0)	87(16.2)	210(39.1)	23(4.3)	537(100.0)	$\chi^2 = 12.8$ df=10
	서귀포시	61(23.9)	13(5.1)	51(20.0)	34(13.3)	89(34.9)	7(2.7)	255(100.0)	
	남북군	52(18.3)	7(2.5)	53(18.7)	51(18.0)	110(38.7)	11(3.9)	284(100.0)	
생 활 수 준	상	6(18.8)	3(9.4)	7(21.9)	4(12.5)	12(37.5)	0(0.0)	32(100.0)	$\chi^2 = 23.8$ df=20
	중상	28(15.4)	15(8.2)	30(16.5)	29(15.9)	75(41.2)	5(2.7)	182(100.0)	
	중중	136(20.4)	28(4.2)	116(17.4)	108(16.2)	254(38.0)	26(3.9)	668(100.0)	
	중하	32(19.8)	5(3.1)	35(21.6)	24(14.8)	57(35.2)	9(5.6)	162(100.0)	
	하	11(34.4)	0(0.0)	2(6.3)	7(21.9)	11(34.4)	1(3.1)	32(100.0)	
가 족 수	4인이하	103(19.7)	25(4.8)	87(16.7)	105(20.1)	187(35.8)	15(2.9)	522(100.0)	$\chi^2 = 21.1^*$ df=10
	5-6인	93(19.9)	25(5.3)	86(18.4)	51(10.9)	190(40.6)	23(4.9)	468(100.0)	
	7인이상	17(19.8)	1(1.2)	17(19.8)	16(18.6)	32(37.2)	3(3.5)	86(100.0)	
	계	213(19.8)	51(4.7)	190(17.7)	172(16.0)	409(38.0)	41(3.8)	1076(100.0)	

1) * p<.05 *** p<.001 2) 편부가정 25, 편모가정 9입.

게 빌립(19.8%), 저축인출(17.7%), 참음(16.0%), 미리 받음(4.7%)의 순으로 나타났다. 80.2%의 학생들이 용돈이 부족할 경우 직접적이고 능동적인 방법으로 부족한 용돈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16.0%만이 참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요인과 부모의 배경변수에 따른 용돈부족시의 행동에서 차이를 보면, 성별, 중·고별, 월평균용돈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학교유형, 거주지역, 생활수준인지도, 모연령, 모학력, 가계소득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용돈이 부족할 때, 남학생의 25.8%, 여학생의 14.1%가 친구에게 빌리고 있었으며, 참는 경우는 남학생은 19.7%, 여학생은 12.4% 이었고, 용돈을 더 요청하는 경우는 남학생은 29.2%이었으나 여학생들은 거의 과반수에 가까운 46.5%가 용돈을 주시는 분에게 부족한 용돈을 더 요청하고 있었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친구에게 빌리거나 참는 경우가 많았으나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용돈을 주시는 분에게 부족한 용돈을 더 요청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학생들은 15.4%가 친구에게 빌리고 있었으나 고등학생들은 23.8%가 친구에게 빌리고 있었으며 참는 경우는 중학생은 18.7%이었으나 고등학생들은 13.5%이었다. 용돈을 더 요청하는 경우는 약38%로 비슷하였다. 중학생들은 고등학생들에 비해 용돈이 부족할 경우에 참는 비율이 높았고, 고등학생들은 중학생들에 비해 친구에게 빌리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1만 5천원 미만의 용돈을 받는 학생들은 16.3%가 친구에게 빌리고 20.3%가 참았으나 6만원 이상을 받는 학생들은 26.9%가 친구에게 빌리고 12.3%가 참았으며, 1만 5천원 미만을 받는 학생들은 다른 집단에 비하여 용돈을 더 요청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용돈이 많을수록 적은 학생들에 비하여 친구에게 빌리는 경향이 있으며 적은 학생들은 많은 학생들에 비하여 참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많은 용돈을 받는 학생들은 친구에게 빌리더라도 다음에 갚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참으려고 하기보다는 친구에게 빌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나 용돈이 적은 학생들은 그러한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빌리기보다는 참으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4인 이하와 7인 이상의 가족에서는 5-6인 가족에 비해 참는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5-6인 가족에서는 4인 이하와 7인 이상의 가족에 비해 용돈을 더 요청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

다. 또한 저축을 인출하여 사용한다는 비율은 7인 이상의 가족에서 높았다.

이상의 결과로 용돈이 부족할 때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이, 중학생들보다는 고등학생들이, 월평균용돈을 많이 받는 학생들이 적은 학생들에 비해 참으려고 하기보다는 친구에게 빌리거나 혹은 용돈을 더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부족한 용돈을 조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정 기간동안 일정 금액의 용돈을 계획하여 사용하고 부족할 경우에 소비욕구를 조절하려고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부족한 용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용돈이 금전관리기능을 학습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용돈마련을 위한 부업경험

〈표 8〉은 용돈마련을 위한 부업경험을 분석한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부업으로 벌이를 하는 경우가 39.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게일(18.3%), 음식점(15.4%), 신문배달(5.2%), 공사장(5.0%), 기타(16.2%) 등이었다.

〈표 8〉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43.3%가 용돈 마련을 위해 부업을 경험하였으며, 56.7%는 부업을 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용돈마련을 위하여 부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개인적 요인과 부모의 배경변수에 따라서는 성별, 학교별, 월평균용돈, 거주지역, 생활수준인지도, 모학력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가계소득, 모연령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남학생들은 48.5%, 여학생들은 38.0%가, 그리고 중학생들은 36.7%, 고등학생들은 49.7%가 용돈마련을 위하여 부업을 한 경험이 있었으며, 인문계 고등학생들은 40.6%,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63.8%가 부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과반수 이상이 용돈마련을 위해 부업을 한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여학생들보다는 남학생들이, 중학생들보다는 고등학생들이, 그리고 인문고교생들보다는 실업고교생들이 부업경험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여학생들보다는 남학생들이 부업경험이 많다는 백선옥(1990)의 연구와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그리고 인문고교생보다는 실업고교생이 부업경험을 많이 하였다는 김영애(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월평균용돈에 따른 부업경험을 보면, 3만원 미만을

〈표 8〉 용돈마련을 위한 부업경험

빈도(%)

변 수		있 음	없 음	계	비 고
성별	남	291 (48.5)	309 (51.5)	600 (100.0)	$\chi^2 = 13.5^{***}$ df=1
	여	228 (38.0)	372 (62.0)	600 (100.0)	
학교	중	220 (36.7)	380 (63.3)	600 (100.0)	$\chi^2 = 21.2^{***}$ df=1
	고	299 (49.8)	301 (50.2)	600 (100.0)	
	인문고	146 (40.6)	214 (59.4)	360 (100.0)	$\chi^2 = 31.0^{***}$ df=1
	실업고	153 (63.8)	87 (36.3)	240 (100.0)	
월평균용돈	1.5만미만	114 (39.3)	176 (60.7)	290 (100.0)	$\chi^2 = 13.0^*$ df=4
	1.5-3 만	140 (38.6)	223 (61.4)	363 (100.0)	
	3 -4 만	86 (45.7)	102 (54.3)	188 (100.0)	
	4 -6 만	102 (47.7)	112 (52.3)	214 (100.0)	
	6만이상	77 (53.1)	68 (46.9)	145 (100.0)	
거주지	제주시	226 (37.7)	374 (62.3)	600 (100.0)	$\chi^2 = 27.0^{***}$ df=2
	서귀포시	116 (41.4)	164 (58.6)	280 (100.0)	
	남북군	177 (55.3)	143 (44.7)	320 (100.0)	
생활수준	상	15 (40.5)	22 (59.5)	37 (100.0)	$\chi^2 = 14.9^{**}$ df=4
	중상	78 (36.3)	137 (63.7)	215 (100.0)	
	중	306 (42.2)	419 (57.8)	725 (100.0)	
	중하	101 (53.4)	88 (46.6)	189 (100.0)	
	하	19 (55.9)	15 (44.1)	34 (100.0)	
모학력	초 졸	103 (52.3)	94 (47.7)	197 (100.0)	$\chi^2 = 18.8^{***}$ df=3
	중 졸	147 (49.2)	152 (50.8)	299 (100.0)	
	고 졸	229 (38.2)	370 (61.8)	599 (100.0)	
	전문대이상	35 (36.5)	61 (63.5)	96 (100.0)	
가계소득	100만이하	122 (49.0)	127 (51.0)	249 (100.0)	$\chi^2 = 8.7$ df=4
	100-150만	128 (40.1)	191 (59.9)	319 (100.0)	
	150-200만	165 (46.0)	194 (54.0)	359 (100.0)	
	200-300만	78 (37.7)	129 (62.3)	207 (100.0)	
	300만-	26 (39.4)	40 (60.6)	66 (100.0)	
계		519 (43.3)	681 (56.7)	1200 (100.0)	

1) * p<.05 ** p<.01 *** p<.001 2) 편부가정 25, 편모가정 9임.

받는 학생들은 약 39%정도가 용돈마련을 위하여 부업을 하였으나 3만-4만원은 약 46%, 4만-6만원은 약 48%, 6만원 이상을 받는 학생들은 과반수가 넘는 약 53%가 부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돈을 많이 받을수록 용돈이 적은 학생들에 비하여 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업을 하는 비율이 오히려 많아지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거주지역별로 보면 남·북제주군의 학생들은 55.3%, 서귀포시 학생들은 41.4%, 제주시의 학생들은 37.7%가 부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도시학생보다 농촌지역 학생들이 부업 경험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와 안동시를

〈표 9〉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평균·표준편차

변 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월평균용돈	1.0											
2 용돈사용확인	-.09**	1.0										
3 가 족	-.03	.35**	1.0									
4 친 구	.00	.12**	.30**	1.0								
5 학 교	-.10**	.15**	.29**	.32**	1.0							
6 대중매체	.03	.14**	.25**	.33**	.41**	1.0						
7 생활수준	.00	.04	.05	.02	.01	.02	1.0					
8 모연령	.19**	-.08**	-.05	.01	-.07*	-.03	-.08**	1.0				
9 모학력	-.02	.04	.07*	.05	-.04	-.01	.23	-.26**	1.0			
10 가족수	.01	-.10**	-.05	.01	.01	-.03	.02	.22**	-.19**	1.0		
11 가계소득	.11**	.01	.06*	.00	-.01	.00	.40**	-.05	.25**	.01	1.0	
12 가계부기록	-.07*	.13**	.17**	.05	.05	.08**	.05	-.09**	.23**	-.07*	.05	1.0
평 균	30.5	2.4	2.6	2.3	2.2	2.5	3.0	43.0	10.5	4.8	188	2.6
표준편차	24.1	.9	1.0	1.1	.9	1.1	.8	4.4	2.8	1.2	91.6	1.2

1) * p<.05 ** p<.01 2) 3,4,5,6은 소비자사회화과정의 하위변인임

중심으로 한 백선옥(1990)의 연구에서 농촌학생보다 도시학생이 부업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상반되었다. 이것은 농촌학생들의 경우 발일을 도와주는 부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생활수준인지도가 중하와 하인 경우 부업경험비율은 과반수가 넘었으나(각각 53.4%, 55.9%) 중이상인 경우는 36.3%-42.2%의 범위인 것으로 나타나 생활수준인지도가 낮을수록 용돈마련을 위한 부업경험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의 학력에서는 초졸인 경우에는 과반수가 넘는 52.3%가 부업경험을 하였으나 전문대이상에서는 36.5%가 부업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나 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부업경험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용돈관리행동과 관련변수와의 관계

용돈관리행동은 계획, 실행, 평가의 3개의 하위개념으로 구성되었다. 용돈관리행동과 관련 있는 변수들이 용돈관리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어슨의 적률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9〉에 의하면 독립변수들간에 다중공선성이 문제가 될 정도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수들은 없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0〉에 의하면 전체적인 용돈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사회화과정요인들, 생활수준인지도, 가계부기록 등이었으며 학교별, 용돈, 용돈사용확인, 부모의 사회인구학적요인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8.5%였다. 가장 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친구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중매체, 가족, 가계부기록, 성별, 생활수준인지도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합리적으로 용돈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소비자사회화가 잘 되어 있을수록, 어머니가 가계부를 기록할수록, 생활수준인지도가 높을수록 용돈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돈관리행동을 계획, 실행, 평가의 하위개념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용돈사용의 계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 학교, 대중매체, 친구 등 소비자사회화과정요인과 가계부기록, 부모의 용돈사용결과확인 등이었으며 개인적 요인과부모의 배경변수는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7%이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비자사회화과정요인 중 가족이었었고, 다음으로는 학교, 가계부기록, 대중매체 및 용돈사용결과확인, 친구였으며, 모두 정

〈표 10〉 용돈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독립 변수	계획 (β)	실행 (β)	평가 (β)	계 (β)
성 별	-.048	-.066*	-.131***	-.098***
학 교 별	-.046	.034	-.011	.014
월평균용돈	.003	-.058	.036	-.018
용돈사용확인	.073*	.020	.067*	.051
사회화과정				
가 족	.197***	.048	.081**	.110***
친 구	.062*	.068*	.230***	.170***
학 교	.175***	.051	.118***	.089**
대중매체	.073*	.167***	.138	.148***
생활수준	.007	.087**	.019	.058*
모 연 령	.036	.022	.015	.039
모 학 력	.033	.004	.026	.025
모 직 업	.025	.030	.014	.037
가 족 수	-.031	-.045	-.028	-.044
월가계소득	-.009	-.029	-.002	-.026
가계부기록	.088**	.091**	.048	.103***
상 수	1.036	2.398	1.189	1.807
Adjusted R ²	.170	.095	.211	.185
F	17.221***	9.355***	22.217***	19.028***

1) 가변수 - 성별 : 남 1 여 0, 학교 : 중 1 고 0, 모직업 : 유 1 무 0

2) * p<.05 ** p<.01 *** p<.001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소비자사회화가 잘 이루어질수록, 부모가 용돈사용결과를 확인할수록, 그리고 가계부를 기록할수록 중·고등학생들의 용돈관리에 있어서 계획적 행동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용돈의 사용과정인 실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친구, 대중매체, 성별, 가계부기록, 생활수준인지도 등이었고, 사회화과정 요인인 가족과 학교, 학교별, 월평균용돈, 그리고 부모의 배경변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9.5%이었다. 가장 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중매체였으며 그 다음으로 가계부기록, 생활수준인지도, 친구, 성별이었으며 모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합리적으로 실행하고 있었으며, 대중매체의 영향력을 많이 받을수록, 부모가 가계부를 기록할수록, 생활수준을 높게 인지할수록,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합리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용돈을 사용하고 난 후의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가족, 친구, 학교, 용돈사용결과확

인 등이었으며, 대중매체, 학교별, 월평균용돈, 그리고 부모의 배경요인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21.1%이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친구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성별, 학교, 가족, 용돈사용결과확인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모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이 용돈을 사용하고 나서 평가하는 경향이 높았고, 친구, 가족, 학교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그리고 부모가 용돈사용결과에 대하여 확인을 할수록 용돈사용결과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배경요인은 중·고등학생들의 용돈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 가족, 친구, 학교, 대중매체 등 소비자사회화과정 요인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자사회화과정요인은 계획에서는 모든 요인이, 실행에서는 친구와 대중매체가, 평가에서는 가족, 친구, 학교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과정에서는 가족과 학교가, 실행과정에서

서는 대중매체가 평가과정에서는 친구와 학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용돈사용결과의 확인은 계획과 평가에서, 그리고 가계부기록은 계획과 실행과정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용돈사용확인과 가계부기록여부가 자녀들의 용돈관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용돈사용에 대하여 부모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통제가 필요하며, 또한 부모의 모범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청소년기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용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사회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 학교, 대중매체 등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대중매체는 중·고등학생들의 용돈사용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보다 신중하게 광고나 각종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제주도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용돈실태와 용돈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제주도 중·고등학생의 월평균용돈은 30,500원이었으며, 중학생은 19,780원, 고등학생은 41,230원이었고, 남학생은 32,880원, 여학생은 28,130원이었다.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더 많은 용돈을 소비하고 있다. 또한, 월평균용돈이 많을수록, 생활수준인지도와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연령은 40대가, 그리고 가계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다른 집단에 비하여 1년 전보다 용돈이 증가한 비율은 높고 감소한 비율은 낮아 학생들의 용돈수준에 있어서도 IMF로 인하여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부모의 용돈사용결과의 확인과 가계부기록은 용돈만족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월평균용돈과 희망용돈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용돈사용결과를 확인하는 경우와 가계부를 기록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월평균용돈과 희망용돈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부모의 용돈사용결과의 확인과 가계부기록이 자녀들의 월평균용돈과

희망용돈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자녀들에게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용돈사용결과에 대하여 부모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경우, 비계획적인 소비지출로 인한 용돈의 낭비를 통제할 방법이 없으며 용돈은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다는 인식을 가지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합리적으로 용돈을 사용하고 금전관리기능을 학습할 수 있도록 자녀의 용돈사용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용돈이 부족할 때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이, 중학생들보다는 고등학생들이, 월평균용돈을 많이 받는 학생들이 적은 학생들에 비해 참으려고 하기보다는 친구에게 빌리거나 혹은 용돈을 더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부족한 용돈을 조달하고 있다. 일정한 금액의 용돈을 일정 기간동안 자유재량으로 사용하고 부족하면 소비욕구를 조절하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부족한 용돈을 마련할 경우, 용돈은 학습도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비합리적인 사용으로 용돈이 부족하면 그 대가로 소비욕구를 조절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부족한 용돈을 더 요청할 경우에는 자녀들과 함께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처방법을 논의하는 것도 좋은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넷째, 용돈지출순위는 성별, 중고별, 거주지역, 월평균용돈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하여 간식비와 오락비에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하여 외식비와 선물구입비에서, 그리고 중학생은 고등학생보다 간식비와 책구입비에서,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외식비에서 지출이 많고, 월평균용돈이 적은 학생들은 많은 학생들보다 책구입비, 학용품비에서, 용돈이 많은 학생들은 적은 학생들보다 외식비, 의복비에서 지출이 많다. 거주지역별로 보면, 제주·서귀포시 학생들은 남·북군 학생들에 비해 외식비에서, 남·북군 학생들은 제주·서귀포시 학생들에 비해 교통비에서의 지출이 높다.

다섯째, 꽤 많은 중·고등학생들이(43%)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부업을 하고 있다. 여학생들보다는 남학생들이, 중학생들보다는 고등학생들이, 인문고교생들보다는 실업고교생들이, 그리고 도시학생보다는 농촌지역 학생들이 부업을 많이 하고 있으며, 생활수준인지도와 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부업을 경험한 비율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용돈을 많이 받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적은 학생들보다 용돈마련을 위한

부업을 더 많이 하고 있고 더 많은 용돈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것은 많은 용돈이 중·고등학생들의 소비성향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소비는 본질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을 모방하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용돈은 소비성향을 부추기게 된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는 적절한 용돈금액에 대하여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가족, 친구, 학교, 대중매체 등 소비자사회화과정은 용돈관리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계획과정에서는 가족과 학교가, 실행과정에서는 대중매체가, 평가과정에서는 친구와 학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기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용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사회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 학교, 대중매체 등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대중매체 종사자들은 광고나 각종 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그 내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며, 학교소비자교육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용돈사용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는 용돈을 줄 때 용돈의 사용계획을 세우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용돈사용결과의 확인은 계획과 평가에서, 그리고 가계부기록은 계획과 실행과정에서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모의 용돈사용확인과 가계부기록여부가 자녀들의 용돈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것은 자녀의 용돈사용결과에 대하여 부모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통제가 필요하며, 또한 부모의 모범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은 제주도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일반 중고등학생으로 확대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병서·김계수, 통계분석을 위한 SPSS WIN Easy, 법문사, 1998.
 김경동·이은죽, 사회조사연구방법, 서울:박영사, 1991.
 김영신, 소비자사회화에 관한 이론 및 경험적 분석, 충남과학연구지, 12(2), 충남대학교, 1985, 207-218.

서정희, 가정학 연구 방법론, 도서출판 하우, 1996.
 정세구, 가치·태도교육의 이론과 실제, 배영사, 1983.
 홍두승, 사회조사분석, 다산출판사, 1987.
 강선자, 국민학교 아동의 용돈관리행동이 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김백영, 국민학교 아동의 용돈소비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김영신, 소비자문제의 유형별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김영애,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용돈관리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김영화, 중학생의 소비형태와 그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경남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동아일보, 1998. 1. 4.
 박경숙, 청소년의 금전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박운아, 소비자태도와 소비자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백선옥, 청소년소비자의 금전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신순아, 국민학교아동을 대상으로 한 용돈관리변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양희, 청소년 소비생활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오도열, 국민학생의 용돈지출과 저축실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이상민, 중소도시 고등학생의 소비생활에 관한 행동분석 연구, 공주사범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이승신, 자녀의 용돈사용실태와 관리방안, 한국가족관계학회 제4회심포지움자료, 1997.
 이영옥, 어머니의 가정관리능력과 청소년의 금전관리지도, 이화여자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95.
 임청자, 청소년의 가정환경요인이 금전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정진화(1985), 청소년의 소비자지식과 소비자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정희자, 용돈에 대한 부모의 관리가 자녀의 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조선일보, 1999. 4. 3.

- _____, 1999. 5. 7.
- 차경실, 청소년의 금전관리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천경희, 청소년 소비자사회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한명옥, 고등학생의 용돈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한은하, 청소년의 용돈관리에 대한 실증적 연구-서울시 내의 중·고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황덕순, 소비자교육으로서 금전관리교육, 전남대학교 논문집(가정학편), 30집, 1985.
- Chuchill, Gilbert A. & Jr. George P. Moschis, Television and Impersonal Influences on Adolescent Consumer Learn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6, 1979, 23-33.
- Moore, Roy L. & Lowndes F. Stephens, Some Communication and Demographic Determinants of Adolescent Consumer Learn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 1975, 80-92.
- Olshavsky, Richard W. & Donald H. Granbois, Consumer Decision Making-Fact or Fic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6, 1979, 93-100.
- Ward, Scott, Consumer Socializ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 1974, 1-14.
- Zigler, E. and I. L. Child, Socialization, in G. Lindzey and E. Aronson,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Addison-Wesley Publishing Co., 1969.